



Credit/ES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11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ESG

탄소중립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안 확정

정부,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최저안 기준 목표가 달성 되면 2030년 탄소배출량은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이산화탄소 환산 톤)대비 53% 감소한 약 3억 4,890만 이산화탄소 환산 톤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부문별로 보면 전력(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운송(전기차-저탄소 연료), 건물(에너지효율), 산업(공정·연료전환·CCS 등 기술지원) 등 전(全)부문에서 감축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문별 목표치는 상이한 수준에서 설정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산업부문인데 산업구조·기술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목표는 비교적 완화(2018 대비 24.3% 감축)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업부문의 경우 감축목표 완화 이외에도 기술개발·전환금융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체질개선'을 유도한다는 정책적 지원목표 또한 제시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전력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 대비 68.8%를 감축하는 가장 높은 목표치가 부여되었다. 여타 건물/수송 부문은 각각 53.6%, 60.2%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전망

정부는 NDC를 발표하면서 핵심 이행전략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가장 높은 목표치가 부여된 전력부문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그 선결과제로서 전력망 확충이 요구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투자계획 또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발전 관련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 측면에서도 2030년까지 50%로 높이기로 하는 등 전환을 위한 자원부담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주요 기반 인프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관련 자원 조달 문제 및 비경제적인 장애요소는 극복과제

금번 NDC안은 미국 신정부의 기후변화 여행 추세에 따라 점차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ESG 환경 하에서 나름대로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 나갔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산업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민간의 부담을 줄여 주고 공적 영역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짜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적 영역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행 자원의 조달에 있어 시장마찰적인 변수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자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체적 실행단계에서의 장애요인도 뛰어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송전망 확충에 있어 현장인프라/허가/지역갈등문제 등 실행단계에서의 역량(규제/인센티브/지역수용성과 관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표 1.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경로

24년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목표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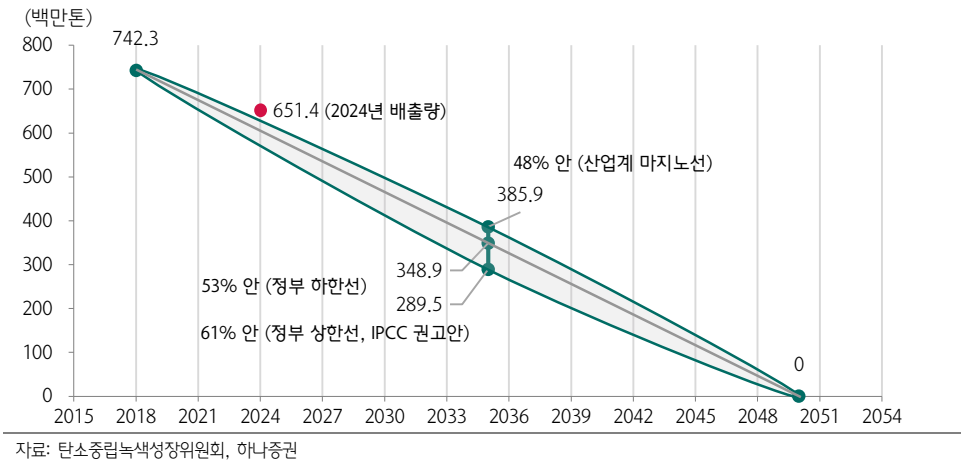


도표 2. 2035년 NDC 부문별 목표 배출량 (단위: 백만톤)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산업 배출량과 전력 배출량
감축 목표달성에는
다음의 가정이 깔려 있음
(신규 원전의 차질 없는 완공 및
가동, 노후 원전 재가동)

구분	부문	18년	24년	△53% (하한선)		△61% (상한선)	
				2035년 배출량 (18년 대비 감축률)	감축량 (24년 대비)	2035년 배출량 (18년 대비 감축률)	감축량 (24년 대비)
순배출량		742.3	651.4	348.9 (△53%)	△302.5	289.5 (△61%)	△361.9
배출	전력	283	218.3	88.3 (△68.8%)	△130.0	70 (△75.3%)	△148.3
	산업	276.3	250.9	209.1 (△24.3%)	△41.8	190.6 (△31.0%)	△60.3
	건물	52.1	43.6	24.2 (△53.6%)	△19.4	22.8 (△56.2%)	△20.8
	수송	98.8	97.5	39.3 (△60.2%)	△58.2	36.8 (△62.8%)	△60.7
	냉매	23.1	35	27.4 (△18.6%)	△7.6	25.5 (△10.4%)	△9.5
	농축수산	27.6	25.6	20 (△27.5%)	△5.6	19.5 (△29.3%)	△6.1
	폐기물	19.4	17.5	9.2 (△52.6%)	△8.3	9 (△53.6%)	△8.5
	탈루	3.7	3.25	2.6 (△29.7%)	△0.6	2.4 (△35.1%)	△0.8
	수소	0	0	8.1	+8.1	6.5	+6.5
	흡수원	-41.6	-40.2	-38.3	+1.9	-39.3	+0.9
	CCUS	0	0	-11.2	△11.2	-20.3	△148.3
국제감축	0	0	-29.8	△29.8	-34.0	△148.3	

도표 3. 에너지공기업 중장기 자산, 부채 전망 (단위: 조원)

전력망 등 투자확대로
부채규모 증가
한전/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으로
부채비를 감소 전망

	24년(실적)	25년 (A)	26년	27년	28년	29년(B)	증감 (B-A)
자산 합계	338.2	345.0	370.0	381.6	393.5	401.6	56.6
에너지(11개) 기관							
부채 합계	288.8	288.6	293.4	297.3	302.9	307.8	19.2
부채비율	(584.9%)	(511.9%)	(382.7%)	(352.4%)	(334.6%)	(327.8%)	(△184.1%p)

주: 한국전력 및 자회사의 경우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한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하나증권